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와 행복을 외치다”

글 편집부 / 사진 서울아산병원 홍보팀 · 간호부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로비에 마련된 '한마음 한뜻 페스티벌'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하는 간호3팀 투석실 간호사들.

‘엄마 뱃속에서 겨우 29주간 머물다 1,390그램으로 태어난 소중이는 선천성 대동맥판 협착증을 진단받고 대동맥 판막시술을 받았다. 소중이는 간호사들의 관심 속에 산소 포화도가 안정돼 갔고, 몸무게도 조금씩 증가했다. 상태가 좋아지자 소중이 어머니는 직접 젖을 물리기를 원했지만, 수유를 하면 숨을 헐떡이거나 산소 포화도가 종종 떨어져 다음으로 미루기를 권했다. 그럴 때면 소중이 어머니는 어깨가 처지면서 눈물을 흘렸다.

힘이 쭉 빠진 소중이 어머니에게 아기 침대에 붙은 ‘힘내줘서 감사해’ ‘잘 자라줘서 감사해’라는 글이 쓰인 카드를 보여주었다. 날마다 건강해지는 소중이가 고마워서 간호사들이 붙인 카드라

면서, 자책하거나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일을 더 고마워할 수 있을지 찾아보자고 말했다. 그날 이후 소중이 어머니의 미소를 자주 볼 수 있었고, 소중이는 엄마 품에 안겨 무사히 퇴원했다. 며칠 후 내게 배달된 카드에는 ‘그동안 소중이 잘 보살펴 주시고,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이 담겨 있었다. 소중이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감사란 일상에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의 ‘감사 수기’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다섯 편 중 한 편인 소아청소년간호팀 고윤희 간호사의 글이다. 수기에는 환자 보호자와 의료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한 간호사가 페스티벌이 열린 강당 로비 벽면에 감사카드를 붙이는 모습. '감사로 행복해진 간호 이야기'라는 글씨도 간호사들이 동료와 환자, 보호자 등에게 작성한 감사카드를 이어 붙여 만들었다.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전시실에 비치된 간호사들의 다양한 '감사 일기'와 '감사 메시지' (왼쪽부터).

된 사연이 잘 표현돼 있다.

간호부는 2014년부터 병원 운영목표인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긍정조직문화' 조성활동을 시작했고, 2015년 초부터 '감사 나눔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5월 23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의 대강당과 강당 로비, 전시실에서 열린 간호부의 '한마음 한뜻 페스티벌'은 1년여 동안 진행해온 감사 나눔활동의 결산인 동시에 간호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였다. 이날 행사 주제가 '감사로 행복해진 간호 이야기'인 이유이기도 했다.

‘환자를 위로할 수 있어 늘 감사’

오후 12시 30분부터는 동관 6층의 대강당 로비와 전시실에 '도전! 100일 감사일기' 등 간호부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감사를 실천한 일기와 부서별 감사활동, 감사카드를 붙인 포토존이 설치돼 동료·선후배 간호사와 환자,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감사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감사를 알고 난 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표정과 행동에 큰 변화가 생겼다. 감사 에너지로 인해 나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 뿌듯하다’는 164병동 한선희 간호사의 표현대로 간호부에서 추진한 감사 나눔활동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 메시지들이다.

여리고 아픈 환아들을 간호하면서 그들의 건강상태가 점차 나아짐을 느낄 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잘 견뎌줄 때, 보호자 또한 서로 협력하며 힘이 되어줄 때 비록 나의 몸과 마음이 지칠지라도

의료인으로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중환자가 많은 병동임에도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며 일하는 병동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환자를 위해 그들의 쾌유를 바라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소아청소년간호팀 김근영 간호사

71병동 신규 간호사님들 보세요. 환자에 웃고 울며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론 도망가고 싶고, 때론 그만두고 싶다가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 늘 감사합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는 당신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면 더 강해질 거예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 71병동 선배간호사 일동

감사를 알기 전에는 힘든 것에만 집중하고 벗어나고만 싶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로서 병원 안에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의 긍정 에너지가 환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간호교육행정팀 김수연 간호사

오늘도 웃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환자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 신관회복실 권연주 간호사

○○○ 환자님 감사합니다. 오랜 병원생활에도 웃음 잃지 않고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관이 좋지 않아 매번 새로 정맥주사를 잡아도 웃으며 괜찮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03병동 배지은 간호사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출근길이 더 즐거워졌고, 산모님들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배가 되고 더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산모님들의 탄생을 축하해줄 수 있



‘한마음 한뜻 페스티벌’에는 700여 명의 간호부 직원들이 참여했다. 활짝 웃으며 피로를 푸는 간호부 직원 사이에 남자 간호사도 눈에 띈다. 간호부 후배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된 유닛 매니저들의 축하공연에서 간호3팀 이정신 유닛 매니저 등 14명이 가벼운 율동과 함께 ‘싱싱싱’을 합창한 후 두 손을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식했다(왼쪽부터).

어서 감사합니다. - 66병동 간호사

이브닝근무와 나이트근무, 휴일근무, 비상호출일 때 딸아이와 재미있게 놀아주고, 별문제 일으키지 않아 제가 일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 J로켓 간호사

김명환 교수님. 채담도 파트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본 좋게 손인사로 응답해주시는 아침에는 남은 하루가 기분 좋습니다. 명확한 설명, 빠른 검사 진행, 정확한 치료로 환자 만족도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 83병동 간호사

바쁘고 허덕일 때 도와주는 나의 동료에게. 신랑보다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고, 서로 공감하면서 수다떨 수 있는 동료들, 무한 감사합니다. 감사 나눔활동을 통해 가족과 회사 동료, 환자들에게 감사하고 너그러워지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 외래간호1팀 이미선 간호사

긍정적 조직문화 만든 축제

오후 3시부터는 동관 대강당에서 본행사가 열렸다.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의 격려사 등에 이어진 간호부의 감사 나눔활동 소개에서는 이정희 · 김지선 · 김은아 · 박소정 간호사가 감사로 행복해진 ‘우리 이야기’와 ‘환자 이야기’를 동영상 등을 곁들여 들려주었다. 손옥 (사)행복나눔125 회장과 해군본부 이주용 중령, 방송인 김제동 씨 등 초청 연자도 감사를 주제로 무대를 꾸몄다.

김제동 씨는 “서울아산병원의 3,300명 간호사들은 고통 받는 사람 옆에 있어줌으로써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서 “간호사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봉사와 헌신도 의미가 없다. 감사를 실천하고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 달라. 중요한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는 말로 위로와 치유의 강연을 끝맺었다.

과장급 이상 간호사들인 유닛 매니저(Unit Manager)들은 후배들을 위해 축하공연을 펼쳤다. 공연에 나선 유닛 매니저들은 랩과 노래, 댄스를 선보이며 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힘들고 지친 후배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유닛 매니저들의 축하공연은 큰 인기를 끌었다.

공연에 나선 팀은 총 3팀으로 간호5팀 윤지현 유닛 매니저 등 6명은 교복에 머리띠를 하고 미스터추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고, 간호3팀 이정신 유닛 매니저 등 14명은 가벼운 율동과 함께 중창 공연을 했다. 외래간호1팀 국혜지 유닛 매니저 등 3명은 반짝이는 복장에 폭탄머리 가발을 쓰고 김건모 댄스 메들리를 선보여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간호사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자아냈다.

간호부의 ‘한마음 한뜻 페스티벌’은 간호의 본질과 전문직으로서의 직업관을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자 함께 공감하고 어울린 한마당이였다.

이날 행사에서 김연희 간호부원장은 “우리 간호부가 최고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마음 한뜻 페스티벌’에 참여한 간호부 직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감사 나눔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자존감 높은 서울아산병원 간호부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